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NEWSLETTER

도서관소식 통권39호(제6권 제4호) 2004년 6월 1일 Http://in4khu.khu.ac.kr

발행인/김수증 발행처/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문의/(02)961-0075(참고열람과)

6

[이달의 소식]중앙도서관내 문화학습공간 마련
[이달의 소식]푸른솔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설치
[이달의 소식]자료열람실 열람시간 조정 - 방학중
[이달의 소식]국내 ebook 이용대상 확대 : 휴학생 및 졸업생
[정보검색팁]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 도서관 칼럼
- 이달의 명시감상
- 정보검색 TIP
- 새로 들어온 자료
- FAQ/백배 활용하기
- 이달의 소식

도서관 칼럼 Library Column

도서관과 선진문화 강국

이 기 종 교수 (관광학부)

녹음이 우거지고 계절은 신록이 깊어 가는 초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주 학생들은 대동제 행사를 끝내고 이제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려면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또다시 독서실 기능이 배가되면서 많은 학생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해 질 것이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기능이 진정한 도서관으로의 기능보다는 고시준비실, 독서실 기능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도서관에서..

정보검색 TIP Information search Tip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관광자원DB, 관광통계DB, 관고아 법령DB, 관광개발투자DB별 연계조회를 통하여 정보검색, 지도서비스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자료들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하여 개별정보제공서비스인 나의 관광정보, 관광뉴스, 관광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의 소식 News

국내 ebook 이용대상 확대 : 휴학생 및 졸업생

올해 3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ebook의 자료열람 대상이 재학생 및 교직원에서 휴학생과 졸업생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휴학생과 졸업생은 국내ebook 열람을 위하여 별도의 등록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최대 5일 5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럼]

도서관과 선진문화 강국

이 기 종 교수
(관광학부)

녹음이 우거지고 계절은 신록이 깊어 가는 초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주 학생들은 대동제 행사를 끝내고 이제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려면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또다시 독서실 기능이 배가되면서 많은 학생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해 질 것이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기능이 진정한 도서관으로의 기능보다는 고시준비실, 독서실 기능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도서관에서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지를 갖고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대학과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보고 있다.

20세기가 제조업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지식 산업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의 쇠잔한 국력과 세계정세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국토· 민족의 분단, 6·25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한민족의 끈질긴 저력을 바탕으로 산업화, 민주화의 능선을 넘어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경제성장률저하, 청년실업률급증, 노사문제 등으로 아르헨티나 모델로 전락하여 선진국 진입에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2만불 소득을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선진한국의 건설은 경제적 지표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걸맞는 정치민주화, 사회질서, 문화수준의 고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한국은 선진문화강국으로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도 경제, 군사적 자립을 기초로 하여 궁극적으로 도덕,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문화대국의 건설을 한국의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하여 21세기 문화시대를 이끌 주역임을 예고하였다. 최근 한국영화산업이 깐느 영화제를 비롯한 국제 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소식을 전하는 낭보를 주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경제적 성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문화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신화에 취하고 민주화투쟁에 쫓기면서 정신적으로 풍요하고 진정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도덕·문화강국을 건설하는데 소홀하였다. 문화관광부의 역할도 확장되어야 하며 전국 주요 도시, 학교, 문화 복지기관의 도서관기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대학은 네오 르네상스 시대 연출을 선도할 것을 자임하였으며 문화강국 건설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활성화는 21세기 문화시대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경희대 중앙도서관은 음악회, 독서토론회 등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즐겨 찾게 하고 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성공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더 나아가 미술, 관광 등 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한 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이 올 여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서관에 유치하여 장차 문화강국으로서의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리더의 산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보검색 Tip]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관광자원DB, 관광통계DB, 관고아법령DB, 관광개발투자DB별 연계조회를 통하여 정보검색, 지도서비스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자료들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하여 개별정보제공서비스인 나의 관광정보, 관광뉴스, 관광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자료]

1. 관광자원

- 관광자원데이터베이스는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자원, 관광상품개발자원, 그리고 관광안내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4만6천건 이상의 관광자원에 대한 텍스트 및 이미지 정보를 제공
- 관광지명, 지역 및 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지도정보의 경우 수치지형도, 교통도, 토지이용현황도, 자연환경현황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공

2. 관광통계

- 축입국통계 : 외국인 입국 및 내국인 출국, 관광수지 등
- 국내관광객이동현황통계 : 주요관광지 방문 내외국인 방문객 집계
- 국제관광통계 : 국가별 여행객수, 관광수입, 관광현황 등
- 관광사업체현황 : 관광사업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 관광지정현황 : 관광특구지정현황, 관광단지지정현황 등
- 유관통계 : 인구통계, 교통통계, 문화통계 등

3. 관광법령

- 관광사업 및 관광개발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법령 및 판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관광개발투자

- 전국 284개 광역시도내의 지정관광지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관광지 개발 및 관광상품, 관광동향으로 나누어 주요신문의 관련기사 제공

5. 관광지식

- 관광산업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연구소의 발간 보고서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원문을 제공

[도서관 백배 활용하기]

● 중앙도서관 원형3층의 자료 활용하기

원형열람실은 1-3층까지 자료로 모두 채워져 있다. 원형1층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 혹은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자료들로 자료들이 주제번호에 의해서 서가에 배열되어 있다. 원형2층은 1/2은 참고도서, 1/2은 정기간행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며 자료의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하다.

원형3층은 제본서가로 불리우며 양서정기간행물과 동서정기간행물의 지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문헌검색시스템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소장정보확인

[도서관 소식]

1. 중앙도서관내 문화학습공간 마련

중앙도서관 2층 구선승관 공간을 6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학습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세부 집기와 기기가 준비되면 학생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이 공간의 주요 이용은 문화공간, 그룹스터디 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매일 오후 2시부터 도서관 자체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시간은 05:00-24:00로 야간 이용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2. 푸른솔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설치

푸른솔문화관내 일반열람실에 무인좌석관리시스템과 유료사물함이 설치되어 6월 7일(월)부터 정상 가동된다. 또한 무인좌석관리시스템의 설치와 함께 시스템의 훼손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된다. 유료사물함은 세부사용지침이 확정되고 신청자의 접수를 받은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3. 자료열람실 열람시간 조정 - 방학중

여름방학기간동안 중앙도서관 및 의학전문도서관, 법과대학도서관, 한의과대학도서관의 개관시간이 변경된다. 개관시간변경은 자료열람실에 한해서 실시되며 일반열람실은 학기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기간은 6월 28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이며, 평일 자료열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20분까지이고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휴실한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4. 국내 ebook 이용대상 확대 : 휴학생 및 졸업생

올해 3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ebook의 자료열람 대상이 재학생 및 교직원에서 휴학생과 졸업생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휴학생과 졸업생은 국내ebook 열람을 위하여 별도의 등록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최대 5일 5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 전자정보실, 961-0079)

5. 컴퓨터 및 악보관련 자료 재정리 작업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료검색 및 열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컴퓨터 관련 자료 및 악보자료들에 대해 재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재정리 작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약4개월동안 컴퓨터자료 19,000여권, 악보 1,500여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의 : 사서과 정리계, 961-0069)

6. 5월 1,2차 정기교육 실시

이용자들의 도서관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5월 20일(목)에 “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한 학술자료 구하기 : KERIS, NDSL, OCLC” 교육이 실시 되었으며, 이어서 5월 25일(화)에 “쉽게 찾는 해외학술논문 검색법”이란 주제로 OCLC FirstSearch 검색법을 교육하였다. 다음 정기교육은 2학기 개강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며 방학중에도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참고열람과, 961-0075)

7. 도서관직원연수 실시

지난 5월 17,18일 양일간 도서관직원연수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는 1부에서 통합형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안에 대한 도서관 각부서의 토의가 있었으며, 2부는 김수중 중앙도서관장의 “불교문화와 문헌정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문의 : 사서과, 961-0072)

[이달의 명시감상]

개구리

한하운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 가.

라랴 러려
로료 루류
르리 라.

*한하운(1920~1975) : 함남 함주 출생, 시집 『한하운시초』『전라도길』외.

—유월 무논의 개구리 소리

참 재치있는 시이지요.
관념어가 하나 없이, 군더더기도 없이
그냥 자음과 모음의 음절 결합만으로
초여름 무논에서 개구리가 울어대는 풍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들, 지식과 관념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이 시는 관념의 공해, 사람살이의 무거움이
말끔히 걷히고 봄비로 잘 씻어진
대지의 연두빛 새 살을 만져보는 느낌입니다.

김재홍 문학평론가, 국어국문학과 교수